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개최일시	2020. 1. 6(월) 16:00~19:30	회의장소	대학교회 106호
참석자 (13명)	강동범(교무처장), 김민서(사범대학 공동대표), 김우정(대학원 학생회장), 김효민(학부 부총학생회장), 백옥경(학생처장), 오희아(학부 총학생회장), 유세경(기획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준엽(관리처장), 임지혜(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최수인(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최혜련(예산팀장), 홍기석(총무처장)		
불참자 (0명)			
안건	교비회계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2020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부속병원회계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2020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등록금회계잉여금처리원칙 의결		
내용	<p>■ 개회</p> <p>- 기획처장이 위원장 선출을 제안하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장 선출 기준을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가 적합하다 생각하여 교무처장을 추천하였다고 답하다. 위원 전원 동의로 교무처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p> <p>- 위원장 이하 각 위원들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다.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에게 공정한 회의 진행을 부탁하고, 위원장이 최대한 공정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다.</p> <p>-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 기한이 1월 15일 임을 고지하고, 외부위원의 일정에 맞추어 차기 회의일로 1월 7일, 1월 8일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이 1차 회의일정도 통보 식으로 전달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자 위원장이 효율적인 일정조정과 외부위원의 일정에 맞추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하고 학부 학생위원의 의견을 질의하다.</p> <p>- 학부 학생위원이 1월 13일을 제안하였으나, 외부위원이 불가하여 14일 오후 5시 30분에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다. 대학원 학생회장은 일정이 있어 오후 6시부터 참석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모든 위원의 동의하에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을 확정하다.</p> <p>- 예산팀장이 장소는 추후 학생처를 통해 고지하겠다고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에 대해 설명하다. 회의 개최일 이후 10일 이내로 공개하여야 함을</p>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위원장이 회의 개최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 회의내용

##### 1.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 및 학부 학생위원 요구안 논의

- 학부 학생위원이 1월 31일까지만 등록금이 책정이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교는 1월 15일까지 책정해야 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발급이 1월 21일부터 이고, 고지서 작업 전에 등록금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만약 등록금 책정이 안 될 경우 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후 차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납부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금일 안건 심의 전에 학생 요구안에 대한 답변의 진행상황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요구안과 자료요청 공문을 학생처로 부터 1월 2일에 받아 각 부서로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수합중이며, 가능한 빨리 답변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2차 등심위 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요청 자료가 수합 되는대로 가능한 빨리 보내겠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각 부서별로 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회신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제안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들의 요구안은 답변할 사항은 답변하고, 관련부서에 공유하면서 예산편성 시점에 해당 요구안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를 요청하고 있음을 말하다. 예산의 증액이 제한적이라 요구안의 일괄반영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학생 안전이나 편의에 관련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할 때 학생 요구안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면 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다음 회의 밖에 없음을 말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 요구안 중 이미 해결되었거나 오늘 안건인 예산(안)

에 반영된 건들도 있을 것이라 말하며, 안건 심의를 하며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에 관련한 요구안도 있기 때문에 요구안부터 먼저 논의하기를 말한다.

- 기획처장이 오늘 회의 안건은 추경예산(안) 및 예산(안) 의결임을 말하고, 보통 회의 안건을 의결한 후에 논의할 것이 있으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니 위 순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작년 회의록을 보면 회의 시작 전에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했음을 말하고 안건을 먼저 의결하는 경우 시간관계상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안건 심의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예산 관련 요구안은 학교 예산 편성 시에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을 것이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료 요청이나 요구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수합하여 차기 회의 전까지 송부하여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등심위 구조 관련 사항은 논쟁적인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과 장기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을 요하는 문제로 이 자리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의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의결한 후 구조관련 논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관련 논의가 논쟁적이라고 해서 예산안 심의부터 하고 구조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현재 등심위 구조로는 학생들이 파행하고 나간다고 해도 의결이 되는 구조인데 관련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심의를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말한다. 2019년도에는 등심위 구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등심위를 개최했는데 올해에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한다.

- 기획처장이 안건을 논의하고 불충분한 경우 회의 개최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차기 회의 여부를 미리 정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관련해서 저번 회의 때 차기 등심위 부터 신임 외부위원 선정 시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번 등심위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질문한다.

- 예산팀장이 지난 회의록에도 나와 있듯이 현 외부위원이 사임을 표명하고 신임 외부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학생위원들과 사전에 만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향후 새로운 외부위원을 모시게 되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현재의 외부위원은 학교에서 선정한 것임을 질의하다. 예산팀장이 외부위원의 기준인 공정성, 전문성, 대표성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선정하였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7명을 학교에서 선정하고 6명이 학생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외부위원을 학교에서 선정하긴 하였으나 외부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 측을 대변하여 발언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하다.

- 관리처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하다. 외부위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로 신임 외부위원을 선임 시 합의된 절차를 따르겠다한 것이라고 하며, 적용시점이 새로운 외부위원을 모실 때인데 현재는 연임하여 게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이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해당 합의사항은 2019년도 최선의 합의사항이었고, 2020년에는 다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다. 외부위원이 학교 측에 편파된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 해도 학생위원 임기는 1년이고 외부위원은 연임하기 때문에 학생 측 대변인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다. 서울대, 인하대, 아주대, 고려대, 홍대를 예시로 들며, 서울대의 경우 외부위원이 학교 측이 선임한 외부위원 1인, 학생 측이 선임한 외부위원 1인, 그리고 학교와 학생이 협의하에 선임한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하다. 과거에 합의했다고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다.

- 관리처장이 현재 학생들의 구조관련 요구안이 작년에 4차 회의를 통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어렵게 논의하고 합의하고 약속한 문제라고 말하다. 논의 후 합의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 시작 전에 언급할 수는 있으나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오늘 안건이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다. 외부위원이 학교위원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논의했던 사항 말고 추가적으로 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추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까지 등심위가 2회 있는데, 구조관련 요구안은 언제 언급할 수 있는 건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구조관련 안건은 등심위에서 다뤄야 하는 기본적인 심의사항을 벗어나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다. 학생위원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으나 등심위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고, 구조 관련 사항이 논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계속 논의를 한다고 결론이 나기 어려우며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임을 말한다. 일정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인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등심위의 본 역할이자 오늘의 안건인 예산(안) 심의를 먼저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학생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하였는데 위원장이 계속 학교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며, 타교의 등심위 구조 예시를 덧붙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 기획처장이 본교는 학생위원의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적지 않으며, 학생과 학교가 동수로 구성되어 각 입장을 대변하고 외부위원이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민주적인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외부전문가는 객관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는 이를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총장이 임명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 자리는 표대결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나가는 자리임을 말하고, 예산(안)을 보며 예산 편성 내역이나 방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학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학생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을 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고 이해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고 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표대결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숫자상으로 학생 모두가 반대해도 외부위원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구조임을 말한다.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예산 요구안에 대해선 예산(안)으로 설명이 된다 해도 구조 관련한 요구안은 계속 요구해도 바뀌지 않는다며 학생위원은 안건상정도 어렵고 이에 저번처럼 추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구조관련 논의를 한다면 정기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자리에서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학생처를 통해 학교에 요청을 하면 등심위 위원들이 모여서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위원들이 항상 안건 심의를 우선으로 하자고 하여 구조 관련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등심위를 개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현재 구조 관련한 요구를 3년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 구조 요구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이번 달 안은 어려움을 말하며, 정기협의체에서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학생처를 통해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추후 논의하는 곳이 등심위인지 협의체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사람들이 모여서 등심위 개최는 아니어도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위원들 모두 시간되는 날에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며 학생처와 일정을 조정하여 등심위 위원들과 구조관련 논의를 하는 것을 약속하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구조 관련하여서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일정 인원이 모여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자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인데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등심위 관련하여 학생처로 공문을 송부해주길 요청하고, 공문을 받으면 논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작년에 이미 많은 논의를 하였고, 여러 고민 끝에 등심위 추가 개최를 결정한 것인데, 등심위에서 등심위 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었다고 설명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심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시기, 방식 등은 추후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추후 논의자리에서 등심위 구조 관련하여 얘기했을 때 등심위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수 없다 라고 할 것인지 질의하자 위원장이 학생처를 통해 요청하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관련 협의를 요청하는 것을 학생처에 보내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당부하며, 학생처가 자료요청 공문을 늦게 전달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다.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자료 요청공문을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전달했다고 덧붙인다.

- 위원장이 1월 1일은 공휴일이었으니 1월 2일에 전달된 것이 늦은 건 아니라고 답하며, 관리처장이 학생들은 실시간 처리를 원하지만 학교의 결재선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양해를 부탁하다.

## 2. 회의 안건 심의

가. 교비회계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2020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p>- 위원장이 기획처장에게 2019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교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이 2019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교비 예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설명하다. 이어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다.</p> <p>- 예산팀장이 등록금회계잉여금처리원칙은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등심위에서 매년 의결하고 있음을 말하고, 기타이월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학생경비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등심위에서 의결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등록금회계에서는 이월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2018년에 발생한 기타 이월은 2019년 대학의 인증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신청 안한 것을 특별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말하다.</p> <p>- 위원장이 2019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교비 예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며, 고시반 예산에 대해 기획처장에게 질의하다.</p> <p>- 기획처장이 고시반 예산은 연구학생경비 안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한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2019년에 고시반 특별예산으로 1억 원 편성하였는데 해당 예산이 정규화 될 것인지 질의하다.</p> <p>- 기획처장이 경상사업과 특별사업이 장단점이 있다고 말하며, 특별예산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쓰고 상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말하다. 고시반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특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고시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고시반에 공간도 배정해주는 등 다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특별예산을 1억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p> <p>- 기획처장이 올해는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학교 예산은 제한된 수입 안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므로 어느 한 곳에 지원을 많이 하면 다른 곳이 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다. 고시반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전문직 동문 네트워크 구축, 동종업계 선배 장학금 추진 등 다방면으로 고시반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특별예산 1억 원이 매해 지원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다.</p> <p>- 기획처장이 특별예산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심사 후 배정이 확정되는</p>
--	--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원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하다. 학교의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고시반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지원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고시반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돈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본교 고시반 지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 부족하고, 고시반 지원이 학교 평가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시반 인터넷 강의 지원, 공간부족해결, 합격 장려금 등을 충분히 보장하여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별예산 1억 원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 1억 원을 매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한 맞춰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매년 1억 원을 특별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 교무처장이 학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고시반 지원이 학교의 명성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학교가 고시반 지원 기본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하되 해당 지역의 선배들로부터 기금도 모아 다방면으로 지원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특별예산 외에 고시반에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약 2억 정도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현 자료로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기에 학교의 사업별 예산 편성 자료를 마련해 달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상세 예산 데이터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고시반 예산과 같이 유목화 하여 질문하면 답변해주겠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이 예산관련 전체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하다. 현 예산(안) 자료는 학교가 1년 동안 전체 예산 규모를 어떻게 편성하고,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보고 하는 것이며 변동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둔 것이라고 설명하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수입과 지출의 구성은 매년 큰 변동이 없음을 덧붙인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운영비에 행사비가 있으면 해당 계정이 어떠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타교의 예시를 들어 말한다.



	<p>- 예산팀장이 회의 자료로 상세 내역을 다 기재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특정 계정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차기 회의에 정리하여 답변하겠음을 덧붙인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행사비는 예시였으며, 현 자료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한다.</p> <p>- 예산팀장이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을 예산팀에 방문하여 듣는 것을 제안한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열람시간에 제공받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예산팀에서는 자료보관 등의 문제로 예산팀에 와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한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회의 자료가 더욱 자세하면 좋겠다고 말하였으나 예산팀장이 대학평의원회, 등심위, 이사회 등 예산(안) 편성 절차상에 있는 기구들과 동일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음을 말한다.</p> <p>- 관리처장이 등심위는 예산의 각 항목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전체적인 규모와 항목의 증감을 보며 예산을 심의하고 등록금을 책정하는 기구라고 말한다. 학생위원들이 요청하는 세부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보다는 예산팀에 따로 요청하는 편이 합당하다고 말한다.</p> <p>- 예산팀장이 대학평의원회 이후 일정을 정해 예산팀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는 내년에도 회의 자료가 상세해 질 수 없는 건지 질의하다.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상세내역을 예산팀에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좋으나 등심위에서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기 때문에 상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p> <p>- 예산팀장이 관련 자료 보관상의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일정을 정해 예산팀에서 설명하겠음을 답하다.</p> <p>- 위원장이 추가질문을 확인하고 안건 의결을 제안하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수영장 용도변경관련공사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된 것인지 질의하다.</p> <p>- 관리처장이 현재 수영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풀을 매우고 공사하는 경우 면적당 드는 비용을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하</p>
--	---

다. 아직 예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안은 없으나 구성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수영장 용도변경공사라 함은 스포츠센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고,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질문하다.

- 관리처장이 우선 예산에 편성해두고 합의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추경에서 없앨 예정이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최소 6억 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관리처장이 해당 금액은 본부 예산으로, 용도 변경에만 소요되는 예산이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관련한 예산은 기관 예산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관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 근거를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학관의 전체 예산규모가 정리되었으며, 학생 수업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2,000평 규모로 건축 설계중이라고 말한다. 올해 여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1학년도에 완공이 목표라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인문대 대표가 학관 리모델링 관련하여 행정실이나 학생회측은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질문하다.

- 관리처장이 기본적인 외관과 총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해졌으나, 각 층의 용도와 배치에 대한 세부 계획은 3~4월 정도까지 수립될 예정이라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레크레이션 홀의 용도 계획을 질의하고 관리처장이 이 자리에서 상세 계획을 다 답변하는 것은 어려움을 말하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실로 알려주겠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리모델링이 진행될 것임을 말하며, 의료원에서 기다리고 있어 교비회계의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교비 예산(안),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의 의결을 제안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유형고정자산이 2020학년도에 0원인 것에 대해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유형고정자산 수입은 보통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입인데, 매각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0원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

다고 답하다. 반면 유형고정자산 지출의 토지 예산은 교지 근접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0원인 이유가 매각여부가 불분명해서 인지 질의하고,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학교가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 편성 시에 토지 매각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나 계획이 없으면 편성하지 않는다고 답하다. 지출부의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는 교육에 필요한 교지 인접 토지를 매입할 기회가 있으면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2020학년도에 교외장학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고, 교내장학금의 대학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였는데, 학부 교내장학금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19학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대학원 장학금이 감액 편성되었기에 줄어든 부분을 감안하여 2020학년도 예산에 추경 대비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장학금 확충 관련 요구가 많고, 학교도 긍정적이라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질문하는 장학금이 성적장학금인지 확인하고, 성적장학금은 많은 대학에서 축소, 폐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하다. 대학의 장학금 지급은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고르게 지원 받아 학업을 무사히 마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다. 본교의 우수 신입생 장학금은 계속 늘고 있으며, 입학금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등록금 수입대비 장학금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달라고 말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우리학교 등록금은 4위이고, 사립대학 중에서는 2위인데, 장학금 지급은 평균 5위임을 말하며 유감을 표하다.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처럼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이 되기도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은 성적장학금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하다.

- 학생처장은 본교는 소득 5분위 학생까지 100%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장학금 외에 이화복지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 지급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다. 또한 경제적 소득분위는 높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옴부즈만 장학금 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곤란이 있는

학생들은 생활비도 지급하고 있음을 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완수가 장학금 지급의 최우선 과제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성적장학금 확충에 부정적인 것 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신입생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 결국 재학생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신입생 장학금 확대가 오래된 건 아니라고 말하자 학생처장이 2018학년도부터 3년째임을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실험실습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지난 등심위 때 실험실습비와 등록금 차등근거 공개에 대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실험실습비는 약대 실습기관 실무 실습비 인상을 예측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인상이 되지 않아 실제 지출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답하다.

- 기획처장이 실험실습비 공개는 2019학년도에 교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2019학년도 결산이 끝나면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결산은 언제쯤 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결산 등심위가 4월에 개최되니 공개시점은 4월 말 이후를 예상한다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이 가면 되는 것인지 질문하고 기획처장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기에 공개 방식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실험실습비는 약대를 제외하고 비슷하게 편성된 것인지 질의하고 학생들이 실험재료, 장비가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증액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이 총 예산의 규모를 보면 특정 부분의 예산을 급격하게 증액해서 편성하긴 어려우나 그 해의 사정에 따라 특별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사업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는 있다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의류산업학과의 재봉틀, 체육과학부의

운동장 등의 예시를 들며 수업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다.

- 기획처장이 해당 사안들을 등심위에서 모두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함을 말한다. 각 단과대학으로부터 특별예산 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별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학교 수업진행을 위한 부분은 꼭 확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해당 사안들은 단과대학에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하다.

- 학생처장이 우선적으로 단과대학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관리처장도 수업 환경에 대한 상세한 사안은 각 단과대학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으며, 각 대학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예산으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타 학교에서는 실험실습비 배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자료의 공개가 가능한지 질의하다. 해당 자료는 단과대학에 위와 같은 사안을 요청할 때 타당성을 갖기 위함이라고 덧붙인다.

- 기획처장이 2019년 결산부터 실험실습비를 공개하기로 했으니 진행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논의하자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되는 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각 단과대학과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캠퍼스 안전비용 확대 관련한 계획을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800여대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다. 타 학교에 비해 캠퍼스 면적은 적지만 CCTV수는 많아질 것이라 덧붙인다. 스피드게이트의 경우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예산 부담도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설치는 검토 중이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12월에 시범운영하였던 관광객 통제 추후 조치에 대해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관광객 통제 아르바이트는 2주일 간 시범 운영한 것인

데, 관광객 억제 효과가 있다는 평도 있었으나 인력 운영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여 검토 중이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는 아르바이트생의 복장과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경비인력 확충을 요청하다.

- 총무처장이 경비인력 충원은 아르바이트생 운영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답하다. 예산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한쪽을 늘리면 한쪽에서 줄어들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관광객 쿼터제 관련 요구는 관광객 통제 인력 확충이 대안이 아닌데, 관광객 통제 인력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공유 없이 진행한 이유를 질문하다.

- 총무처장이 관광객 쿼터제는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말하며, ECC B4에는 외부업체가 입점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문에서부터 관광객을 통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하다. 관광객 쿼터제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반대의견도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이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은 정문부터의 관광객 쿼터제는 학생들도 요청한 적이 없으며, 52대 총학생회에서는 웰컴센터를 통해 관광객이 들어오고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총무처에서 학생들과 공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쓴 것에 유감을 표하다.

- 총무처장이 완벽한 통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시범운영이라 하더라도 통제 인력의 매뉴얼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다음 관련 예산 집행 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CCTV는 사후 대처 방안이기 때문에 경비인력 확충을 요청하는 것인데, 학교는 예산상의 이유로, 타 학교와의 수적 비교로 확충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다. 경비 인력은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부족한 것이기에 확충을 요청한다고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 사업비

로 편성되어 있다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실습 기자재, 실습실과 같은 것은 학생들의 교육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해당 예결산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해당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 사업이므로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되었음을 답하다.

- 기획처장이 해당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집행되고 있음을 말하다.

- 위원장이 의료원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음을 말하며 교비회계의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교비 예산(안),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의 의결을 제안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에 대해 지난 학년도의 잉여금은 어떻게 쓰였는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이 해당 잉여금은 경영대학에서 인증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추가예산 요청이 있어 특별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답변하다.

- 위원장이 교비회계의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8인이 찬성하여 교비회계의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 등록금회계잉여금처리원칙

나. 부속병원회계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안하여 부속병원의 전략기획본부장과 전략기획팀장, 양병원 관리팀장이 배석하다.

- 전략기획팀장이 의료원 예산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이어 양 병원의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하다. 이어 위원장의 요청으로 2020학년도 예산(안)도 차례로 보고하다.

- 위원장이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다.

- 관리처장이 서울병원의 고정자산 관련 예산변동을 질의하고 서울병원 관리팀장이 공기에 따라 기성 집행하는데, 시점이 지연되며 발생한 차이라고 답변하다.

- 관리처장이 목동병원의 병원 개보수 예산 관련하여 질의하고 전략기획팀장이 목동병원의 중증종합병원 재진입을 목표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법인지원금 일부를 이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NICU사태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지원을 받았으나 예상보다 운영이 잘 되었고, 주변 병원들이 최근 5년 사이에 리모델링하면서 의료수익이 20% 가량 증가하였음을 말하다. 중증종합병원 재진입을 위해서라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예산을 배정했음을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의료수익의 증가에 비해 재료비가 감액되는 것의 원인을 질문하고 전략기획팀장이 지급 유예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답하다. 목동병원의 실적이 좋아지면 재료비가 증액될 것이라고 말하며, 재료비가 절감되어야 수익이 좋아지는데 이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하다.

- 관리처장이 인건비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전략기획팀장과 목동병원 관리팀장이 급여 유예금 및 지급계획에 대해 설명하다. 전략기획본부장이 목동병원에 트레이닝을 위한 교원이 있음을 설명하며, 서울병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목동병원의 캐시카우와 트레이닝 병원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말하다.

- 외부위원이 목동병원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다. 등심위에서 부속병원 회계를 다루는 이유는 법인 대여금이 제공되는 것에 대한 학교의 부담감과 병원전입금으로 인해 학교에 기여하는 바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병원의 영업이익으로는 은행 차입금과 법인 대여금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서울병원 관리팀장이 차입금의 증가에 대한 학교의 걱정을 알고 있으며, 목동병원의 캐시카우 역할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나 의료원 내에서 자구책



으로 재료비 이월 등 여러 방면에서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한다.

- 목동병원 관리팀장이 서울의 몇 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병원 영업 이익률이 2% 내외이고, 목동병원도 NICU사태 이전에는 학교에 기여도 하고 수익도 유지했으나, 사태 이후 2차병원으로 강등되고, 서울병원도 2차병원으로 시작하여 어려운 상황임을 말한다. 단기간의 어려움은 법인 대여금과 같은 차입금으로 극복하고, 정상화가 되면 2~3% 이익이 달성 될 것이며, 의료 외 수익에서 적자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부대수입 창출이 되면 대여금을 상환하며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 외부위원이 중증종합병원에 진입하는 경우 수가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고 전략기획팀장이 8%라고 답한다.

- 외부위원이 현재 병상 가동률을 보면 내후년쯤은 되어야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내년까지 차입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한다. 본교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경비인력 확충도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의 인건비를 인상하고 정상적 급여지급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없었는데 2020학년도에 발생한 것에 대해 질의한다.

- 전략기획팀장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해마다 있는 부분이고, 서울병원의 경우 2019년에는 6개월, 2020년에는 1년 치 여서 증가폭이 커서 증감사유로 기재한 것이라고 답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2020학년도 의료수익의 외래수입 증가 예상 근거를 질의하고 전략기획팀장이 계산 내역을 설명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외부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본교는 인건비 인상을 못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만 인건비를 인상한 사유를 질문한다.

- 전략기획 본부장이 임금 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하였으나 파업직전까지 가게 되어 임금인상으로 인한 손실과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계산한 결과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서 소폭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음에 양해를 구한다. 경영진은 2020년에도 동결을 전제로 협상할 것임을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로 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부에 해당 내용이 없음을 지적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병원 전입금 관련하여 언제부터 전입할 계획인

	<p>지 질의하다.</p> <p>- 전략기획본부장이 2021년부터 의료수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전환 시점을 확답하긴 어렵다고 답하다. 의료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흑자전환 되는 해부터 전출하고 싶다고 밝히다.</p> <p>- 병원 관계자 전원이 퇴장하고, 위원장이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부속병원 회계의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의결사항</p> <p>-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p> </div> <p>■ 폐회</p> <p>- 위원장은 2차 위원회를 1월 14일(화) 오후 5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확인하고 회의록 작성일정 준수에 대해 상기시키고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p>
<p>확 인</p>	<p>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1월 6일</p>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강동범	강동범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위 원	김민서	김민서	위 원	이준엽	이준엽
	위 원	김우정	김우정	위 원	임지혜	임지혜
	위 원	김효민	김효민	위 원	최수인	최수인
	위 원	백옥경	백옥경	위 원	최혜련	최혜련
	위 원	오희아	오희아	위 원	홍기석	홍기석
	위 원	유세경	유세경			
작성 자	예산팀 안 예 지 (안예지)					